

美 민주, 버티는 바이든에 제동 걸린 사퇴론

상·하원 회의 갖고 대선 후보 대책 논의 의견 분열만 확인...바이든 본선 경쟁력 회의론 여전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측이 완주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오전 TV 토론 이후 첫 의원총회를 가졌고, 상원 의원들도 오찬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후보직 사퇴 요구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롭게 한다면서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으나, 지난달 말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깊어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회의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필요

성을 거론했던 일부 하원 의원이 입장을 바꾸는 등 '후보 사퇴론의 진양' 격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이 잇따르면서 후보직 사퇴 요구의 확산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전체 의원총회를 진행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회의장 내에서의 발언 내용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토론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정례의 총은 대체로 의원들의 자유 발언을 듣는 자리였다고 리처드 닐 하원의원(매사추세츠)이 말했다.

다른 참석 의원들은 의총의 세부 내용은 함구하면서 회의록 "정리 세션", "가족 대화"로 묘사했는데 이는 '가시 돌친 내부 논의'를 표현할 때 사용

되는 문구라고 NYT는 전했다.

의총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문제를 놓고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코윈 하원의원(테네시)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느냐(같은 입장이나)"는 질문에 "우리는 심지어 같은 책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는 마이크 퀴글리 하원 의원(일리노이)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길 수 없으며 다른 의원들도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러나 제리 내들러 하원의원(뉴욕)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비공개로 진행된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에 여전히 우려가 있지만 이는 이제 더 '포인트'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NYT가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는 없다'고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후보직 사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흑인 의원 모임, 히스패닉 의원 모임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유지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중 6명이 전날까지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NBC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서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수행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내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의원들도 이날 정례 오찬 회의를 열었다.

상원에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필요성을 표명한 의원은 없으나 하원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은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 인사들과 접촉하고 내후 사퇴 수습을 계속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선캠프의 세드릭 리치몬드 공동의장은 이날 MSNBC에 나와 일각에서 계속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요구를 '주의 분산'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은 이 나라를 트럼프로부터 보호하는 메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트럼프에게 (대선 승리로 가는) '패스(pass)'를 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대신 전쟁터 못다 핀 '메달의 꿈'

복싱 할리니체프 등 우크라이나 유망주 400명 조국 지키다 희생

파리 올림픽 2주일이 앞두고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올림픽 유망주 400여명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400여명의 우크라이나 선수가 희생됐다고 보도했다.

AP는 그중에서도 복싱 유망주로 꼽혔던 막심 할리니체프의 사연을 조명했다.

할리니체프는 2017년 유럽 청소년 선수권 대회 금메달, 2018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은메달 등을 딴 우크라이나의 복싱 유망주였다.

그는 2021년 12월 복싱 연맹과의 인터뷰에서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조국을 위해 메달을 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3월 경기장 대신 전쟁터로 나가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서 조국을 지키다 숨졌다. 이 지역은 현재 러시아가 거의 점령하고 있어 그의 신도 찾지 못한 상태다.

AP는 복싱 유망주였던 그는 전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었지만, 올림픽 메달의 꿈 대신 조국을 지키는 것을 택했다고 전했다.

할리니체프는 2022년 4월 유럽 선수권대회 훈련을 위해 키이우로 이동하던 중 러시아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목격하고 생각을 바꿨다.

훈련 코치에 따르면 할리니체프는 자신의 딸이 러시아가 점령한 조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딸 바실리사는 4살이다.

코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할리니체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그는 2022년 5월 21살의 나이로 군대에 합류했고 그해 말 바흐무트에서 전투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상처를 재 치료하기도 전에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고 지난해 3월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그의 반려자였던 폴리나는 "할리니체프는 전쟁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며,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다"며 "그는 한 점의 의심 없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다 숨을 거둔 유망주 중에는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사격 선수 이반 비드냐크, 리우 올림픽 역대 국가대표였던 올렉산드르 피엘리첸코, 유도 선수 스타니스라프 홀렌코프 등이 있다.

할리니체프의 코치는 "전쟁에서 숨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조국을 위해 메달을 땀을 것"이라고 했다.

AP는 최근 할리니체프가 훈련하던 체육관에서 추모식이 열렸으며, 그의 4살 된 딸 바실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사리 같은 손에 커다란 글러브를 끼고 아버지가 싸웠던 링 위를 뛰어다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황소를 피하라 9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 페르민 축제 참가자들이 질주하는 황소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 황소 달리는 매년 7월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산 페르민 축제 주요 행사 중 하나이다. /연합뉴스

"30여명 사망 어린이병원 공습 리 강력 규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30여명의 사망자를 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병원 공습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9일(미 동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측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영국, 프랑스, 에콰도르, 슬로베니아,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바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의 비겁하고 타락한 병영 공격을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발을 발사해 키이우·드니프로·크리비리흐·슬로비안스크·크라마토르스크 등 여러 도시의 아파트와 인프라 등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 있는 어린이병원도 폭격을 당해,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됐

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소아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특히 충격적"이라며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투석실도 파괴됐다"며 "희생자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아픈 아이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광범위한 피해가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탓이라고 주장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도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가 안보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측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